

‘투수왕국’ KIA 내년엔 ...



**한기주 팔꿈치 수술·용병듀오 거취 불투명
 윤석민·양현종 外 선발진 없어 전력 차질
 로페즈 잡기·좌완 계투진 육성 과제로**



〈로페즈〉 〈구투손〉

로페즈를 무조건 잡는다는 입장이다. 결정적인 인상을 남기는데 실패한 구투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투손이 10승 이상을 선물했고, 대체 용병의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현종과 윤석민 외에 확고한 선발진이 없는 만큼 KIA는 두 용병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시즌에도 용병을 모두 투수로 구성할 방침이다.

한기주의 부재도 KIA의 계산을 복잡하게 한다. 한기주는 13일 미국에서 오른쪽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골관절염 수술을 받는다. 한기주가 받는 주수술은 손상된 인대 분리에 자신의 다른 부위 인대를 이식하는 ‘도미존 서지리’로 재할만 10~12개월이 걸린다. 정상피칭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사실상 두 시즌을 쉬게 되는 셈이다.

마무리 한기주가 자리를 비웠던 시즌 초 윤석민이 임시 방편으로 마무리로 보직을 옮겼고, 이후 유동훈이 KIA의 뒷문을 단속했다.

성공적으로 전력 누수를 막기는 했지만 KIA는 갑작스런 마무리 부재로 혼란을 겪었다. 또 연투 능력이 떨어지는 유동훈이 내년 시즌 내내 마무리로 활약해줄지도 미지수다. 군복무를 마치고 내년 시즌 복귀하는 신용운과 김희걸의 움직임에 따라서 불펜운용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특히 KIA는 마무리 경험이 있는 신용운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좌완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올 시즌 양현종이 마운드 셋벌로 떠올랐지만 좌완 계투진의 육성은 실패로 끝났다. KIA는 1일부터 시작된 남해캠프에서 박경태, 정용운, 박상혁과 함께 2010 신인 심동섭, 임기준 등 좌완 투수들을 조련하고 있다. ‘가을까지’ 김정수를 스카우트에서 코치로 보직 변경을 한 것도 좌완육성 계획의 일환이다.

2009 챔피언 KIA는 트레이드카드까지 내세워 마운드 보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투수왕국 재현을 통한 명가재건, 2010년을 준비하는 KIA의 키워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기 초등 야구대회 내일 개막

제 6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 학교 야구대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광주 광산구 본양리야구장에서 열린다.

KIA 타이거즈가 개최하고 광주야구협회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꿈나무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5개 초등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우승기, 우승 트로피, 기념

메달 및 볼 30타(360개)가 부상으로 주어진다. 준우승팀과 3위 2팀에게도 트로피와 기념메달이 증정되며 각각 볼 20타와 볼 10타가 상품으로 수여된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는 볼 15타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또 최우수선수상 등 10개 부문에 걸쳐 인상이 수여되며 클러버와 야구화 등이 상품으로 마련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월드골프챔피언십 시리즈 HSBC 챔피언스에 출전할 양용은(왼쪽부터)과 필 킬슨·타이거 우즈·세르히오 가르시아가 3일 중국 상하이 스카이 리인을 배경으로 티샷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YE는 훌륭한 선수”

〈양용은〉

HSBC 챔피언스 기자회견

“흔들리지 않는 경기펼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한국의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 선수를 높이 평가했다.

우즈는 오는 5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서산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천143야드)에서 열리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의 마지막 대회인 HSBC 챔피언스 출전을 하루 앞둔 4일 기자회견에서 “YE(양용은)는 훌륭한 선수”라고 말했다.

그는 “YE와는 3년 전 처음 이 대회에서 만났으며 최근 골프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였다”면서 “자신감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하며 올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혼다클래식 등 여러 대회를 석권했다”고 평가했다. 양용은은 2006년 이 대회에서

처음 우즈와 만나 맞대결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양용은의 매너저 박준철씨는 “양용은의 컨디션이 좋고 국민이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즈는 그러나 “양용은을 포함한 다른 선수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대회에서 승리하고 싶다”면서 “서산골프장의 코스가 훌륭하고 몸 컨디션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가 대중화되고 가족 단위로 즐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부인과 아이들이 하루 앞둔 4일 기자회견에서 “YE(양용은)는 훌륭한 선수”라고 말했다.

양용은은 2006년 이 대회와 최근 PGA 챔피언십에서 우즈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이번 3번째 대결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PGA 투어 내년에도 41개 대회 개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최근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돌해와 같은 41개 대회를 개최한다.

PGA 투어가 4월(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2010시즌 일정표에 따르면 1월7일부터 미국 하와이 카라불아에서 열리는 SBS챔피언십부터 9월2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투어 챔피언십까지 37개 정규 대회와 플레이오프 4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PGA 투어는 2008년부터 3년째 41개 대회를

개최한다. 그린이아주 클래식(7월 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스프링스에서 처음 열리게 됐고 폴 시리즈로 알려진 터닝스톤 리조트 챔피언십이 8월 초로 앞당겨지며 페덱스컵 포인트가 주어지는 대회로 변경됐다. 4개 플레이오프 대회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8월부터 진행되고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 열리는 폴 시리즈 일정은 추후 발표된다. /연합뉴스

표 육상선수권 10일 중서 개막

김덕현·임희남 金 기대

〈광주시청 소속〉

2010 광주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인 제18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다.

선수 29명을 내보내는 한국 육상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세단뛰기의 김덕현(광주광역시청)과 여자 멀리뛰기의 정순옥(안동시청)에게 금메달을 기대한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포상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 선수들의 동기를 자극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이번 대회에 대표 1진급을 파견, 내년 11월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을 점친다. 12월 홍콩에서 열린 동아시아게임에는 2진급을 보낸다.

전국체전에서 김하나(안동시청)가 200m와 400m 계주에서 23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한국 육상은 상승세를 탔다. 새 포상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한국기록에 연연하기보다 세계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선수가 개인 최고기록을 갈아

치를 때마다 연맹이 화끈하게 당근을 풀면서 선수들의 투지가 더욱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다.

연맹은 임희남(광주광역시청), 김국영(평촌정보산업고), 전덕형(대전시체육회), 여호수(상계대)가 출전하는 남자 400m 계주와 김하나, 이선애(서남중), 강다솔(덕계고), 정순옥이 호흡을 맞출 여자 400m 계주에서도 메달권 진입과 새 기록 작성을 바란다.

황규훈 연맹 부회장은 4일 “김덕현과 정순옥이 각각 개인 최고기록인 17m10과 6m76만 넘어준다면 아시아 정상은 문젠없다”고 말했다.

문봉기 대표팀 총감독, 장재근 트랙 기술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2011년 대회를 준비 중인 연맹은 이번 대회까지 성적을 지켜보고 평가에 영향을 따로 주려 미국 등 선진국에 유망을 보내고 대표팀 훈련 시스템도 완전히 끌어 고칠 예정이어서 태극마크를 둘러싼 선수 간 각축도 볼을 뽐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육상 꿈나무 조기 발굴을 위한 제3회 광주시교육감배 육상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4일부터 이틀간 광주 무등경기장 육상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초등부 여자 6학년 100m 결승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협찬 출발을 하고 있다. /위정각기자 jwi@kwangju.co.kr

광주 육상 꿈나무들 총출동

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초·중 1,300여명 참가 기량 겨뤄

제3회 광주시교육감배 육상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4일부터 이틀간 무등경기장 육상장과 광주체고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육상을 활성화하고 육상 꿈나무를 조기 발굴해 우수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광주지역 초·중학교 192개교에서 1천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초·여초·남중·여중부 4개부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대회 종목은 초등부 3학년의 경우 80m 1개 종목이고, 4·5·6학년은 100·200·800m·400m계주·멀리뛰기·높이뛰기·포환던지기 등 7개 종목이다. 중학부는 남녀 모두 100·200·400·800·1천500m·400m계주·멀리뛰기·높이뛰기·포환던지기·원반던지기 등 10

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현재 선수생활을 하고 있지않은 일반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말 그대로 새로운 육상 유망주를 발굴하는 무대이다.

당초 이 대회는 광주 육상 꿈나무 발굴의 산실이었다 옛 ‘학교간 육상경기대회’이었으나 3년전 명칭을 ‘광주광역시교육감배 육상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바꿔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

생들의 체력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며, 스승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건전한 학교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대회전 출전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체크했고 이상이 있는 학생은 출전을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